



우리시대 참스승

가산초등학교 교장 윤영철

초빙교장공모제 자율학교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독서쟁이 통한 명품학교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학교는 누구부터 달라져야 한다가 아니라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실천, 변화의 목표를 세우고 학습자를 만족시키는 교육,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통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 학교는 학교라는 전체 집단을 위하여 조직된 사회가 아니며 학교 사회 집단 구성원인 각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와 발달을 위하여 조직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자기 페이스대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학교경영의 설계라 볼 수 있는 학교경영계획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경영 계획 실천에 있어서도 모든 학습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의 개별화에 초점을 두어 학교경영에 임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경기도로 부임해 포천에서만 근무한 윤 교장은 “포천의 교육여건이 비록 열악하지만 인심이 좋고 학생들이 순박해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아궁이에 불 지피던 시절에 포천에 근무하기 시작했다는 윤 교장은 지금은 많은 면에서 도시발전이 되었고 교육환경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한다. 윤 교장은 가산초등학교에 부임해 생각하는 독서쟁이 통한 명품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예절교육 강화, 1인1기 운동 실천, 창의성 및 인성교육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산초등학교는 생각하는 독서쟁이 명품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자도서관 운영, 다양한 독후활동 실시, 독서논술교육을 통해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또 생활한자 교육을 수준별 한자교육과 교

내 한자 능력 검정 운영, 국가 공인 한자 검정 장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은 생각하는 독서쟁이 환경조성, e-도서관 운영, 생각하는 독서쟁이 행사활동, 책으로 여는 행복 가산, book class 가산, K.R.D.I인증시험, 칩작품 함께 하는 독서 열차 등이다. 특히 가산초등학교 2007년3월1일부터 실시된 초빙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기간동안 자율학교 시범학교로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의 학교와 겹쳐져 위치 지 않는 실력 있는 학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명품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 평가는 반드시 실시하고 학교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수시로 하며 매 학년도 말에는 전 교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새 학년도 각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교장은 가산초등학교 학생 각각의 특성과 소질에 따라 다양한 특별활동반과 동아리를 조직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수의자부담액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산 한마당을 축제기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체험활동, 견학, 강사초청, 수련활동, 특기적성 교육, 공연활동, 전시활동 등을 최대한 조장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

교사 맞춤형 혁신 아카데미 개강식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6월27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대경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라는 주제로 단원학교 교원대상 혁신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다. ‘교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는 모토 아래 교수학습의 주체로서는 새로운 혁신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학부모 등 외부교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원학교 교원대상 혁신 아카데미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기~4기로 나누어 강좌별 및 학습일정에 따라 희망기수를 선별하여 수강신청을 받았으며,

관내 1천256명의 교원중 742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혁신 아카데미 1기에는 많은 교사들이 시청각실을 가득 메워 진지하게 경청함으로써 학교의 변화·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감을 보였다. 최길용 교육장은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변화와 혁신은 교사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이 시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혁신참여의 선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 화성교육청 김윤배 교육장의 ‘문학작품 창작교육의 현실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90분간의



김윤배 전 화성교육청이 ‘문학작품 창작교육의 현실과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가 있었으며,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최병기 원장의 ‘한국교육, 어디로 미래는 있나?’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협력수업 모델

6월15일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고등학교 개교 기념식

영북초등학교는 6월21일 포천 관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약 30여명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관계자를 초대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협력수업을 공개했다. 경기도포천교육청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협력수업을 공개하고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포천교육청 관내 모두 1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원어민 협력수업 공개를

통해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날 공개된 4학년 학생들의 수업의 주제는 “What time is it?”로 원어민 보조교사가 직접 몸으로 시계를 만들어 시작 알아맞히기 게임, 율동과 함께 하는 챗트 등의 활동 위주의 한국 교사와 원어민 보조 교사의 협력수업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40분 동안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진행된 협의회에 참석한 한국교사와 원어민

보조 교사교사들은 활기차고 좋은 수업으로 평가했으며 협의 이후에 원어민 교사들은 이국에서 모처럼 만난 동료 교사들과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 등 서로 헤어짐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영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지원으로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교육청이 전시장으로 변신 했어요

관내 학교 교육활동 결과물 상설 전시 장소 제공



층, 2층 계단 한 칸에는 그리기 작품이, 진열대에는 도자기와 만들기 작품이, 벽면에 걸린 사진 작품, 학부모 작품이 교육청 공간에 상설로 전시되고 있어서 교육청을 방문하는 학부모와 민원인에게 교육청 환경 변신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포천교육청 1~3층 공간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 교육활동 우수 작품 전시가 상설로 열리고 있다. 본 전시는 일정에 따라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전시되며, 포천 관내의 유치원, 특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명품교육 활동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6월은 일동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 결과물인 색종이 접기

작품, 과학 작품, 시화 작품, 평생 교육 결과물인 비즈 공예 작품, 수채화 및 유화 작품 15점과 교육활동 우수사례 9점, 교내 백일장 문문 입상자 6점, 싱크로나이즈 활동을 볼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전시하여 일동초등학교의 명품교육 활동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모두를 아우르는 뜻 깊은 전시가 되고 있어 학교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길용 교육장은 “다양한 형태의 질 높은 교육활동 결과물과 홍보물은 학교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 업무로 교육청을 방문한 김급희 영양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모습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교육청이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계속 전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는 6월23일 포천여성회관에서 포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민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기도민회 장학금은 매년 지금 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생 1백80만 원, 2년제 대학생 1백50만원, 고등

학생 70만원 등이다. 이날 장학금은 1년중 하반기 6개월 분으로 4년제 대학생 각각 100만원 4명과 2년제 대학생 1명 85만원, 고등학생 3명에게 각각 4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고조홍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재

경포천시민회 회원, 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경기지역 젊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후 꾸준히 기금을 조성한 결과 2006년말 12월 200여원을 돌파했다. 각 시군에 배정되는 장학생 선발은 시군의 인구비례에 의해 선별된다. 이번엔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김민선(고려대 4학년), 정명수(서울대 2학년), 유지은(서강대 3학년), 윤소라(삼육대 1학년), 이재호(인덕대 1학년), 최신지(포천고 1학년), 김남수(포천고 1학년), 박지수(관인고 3학년) 등 7명이다.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은 “경기도민회 장학금은 경기도출신들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오늘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중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포천을 이끌어 가는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교육산업과 한국교육의 발전과제

지금까지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긴장과 갈등, 서로간의 힘 겨루기는 우리 교육 전체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소진 시켜왔을 뿐입니다. 이런 갈등은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나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교육 산업이 공교육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교육산업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교육산업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산업 스스로 공교육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교육산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한다면, 공교육산업과 사교육산업 사이의 공존과 협력방안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지가 의사·약사·변호사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과외교습행위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불법개인교과·불법방문교과·불법공부방 등 각종 형태의 불법개인교과가 범람하여 사교육비를 급증시키고 우리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교과 개인교과·탈법과외로 인한 사교육비의 급증으로 인구재양을 우려하게 하는 출산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년 3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조기유학에 의한 100여명의 외화가 유출되어 내수경기를 침체시키고 나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인교과·탈법과외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여 여러 명의 교습자가 교대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방문하여 교습하므로 관계기관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개인 과외 교습사 및 불법과외의 수에 비례하여 과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효과적인 행정 지도에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제도권 밖의 불·탈법 사교육들은 규제하지 못하고 건전한 사교육의 질서 확립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개인교과·탈법과외는 교습자의 학력이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습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상조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비좁은 시설이용과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다보니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난다 해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비속어와 언어폭력 그리고 학생들의 체벌이 이루어져도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변형하여 밀실로 숨어들어 급액의 규제도 없는 과외 수업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탈세를 함으로써 조세형평과 사회정의 훼손을 초래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과외개인교과·탈법과외가 계속되는 한 과외망국론이라

는 말과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고 기본권 생활마저 흔들리게 하며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끝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만사탄(萬事之難)은 없지 않으나 그나마 고액 개인 과외 유학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가중 문제와 음성적 개인 과외교습의 문제점과 불법개인교과의 폐해를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이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사회 환경을 감안하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람의 욕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사교육 역시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고급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문제점, 혼란도 안고 있어 규제를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교육, 사교육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교육수요를 충족해주고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배움의 인간에게 행복의 총량을 허용할 적에 비로소 그의 인간적 존엄성과 함께 가능해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 배움을 위해 가능한 배움의 기회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하며 배움의 수단이나 도구는 가능한 한 다양해야 합니다.



이종진 한국교육산업협회 이사장

《 함께 공부해요 》

朋友之交(붕우 지교) ⑦ (장우간의 질서를 밝힘)

大夫士相見也 雖貴賤이 不適하나 主人이 敬客則先拜客하고 客이 敬主人則先拜主人이다. [雖 비록수, 賤 천천천, 拜 절배] 대부사상견 수권천 부작 주인 경객즉선배객 객주인즉선배주인

“대부와 사(士)가 서로 만나 보는 자리에서는 비록 신분의 귀천(貴賤)이 같지 않지만, 주인이 손을 공경하면 손이 먼저 주인에게 절한다. 공적(公的)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私的)인 것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여진을 볼 존경할뿐, 신분의 귀천을 논하지 않는다. 참으로 도덕을 숭상하는 올바른 태도라 하겠다. 주인이 기뻐 하면 손님도 먼저 인사한다. 주인이 기뻐 하면 손님도 먼저 인사한다.”

문의 : 011-354-6485

양주승 본지 지문위원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마케팅어

방문/출장 13. < 회사 방문 > : (1) 상담 -1 * “대니”와 약속이 있어 왔는데요 아이해벤어포인맨 미스터 “대니” < I have an appointment with Mr.Danny. > * 잠시 기다려 보세요 웨이러미닛, 플리스 < Wait a minute, please. > * 비서실로 안내하세요 테이귀 투더게스룸 < Take him to the huest room. > * 오셔서 반갑습니다 1)쏘나이스오류 투귀 < So nice of you to come. > 2) 아인소글렛츄 쿿귀 < I'm so glad you could come. > * 밥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 웨이러미닛유 투 < Nice meeting you too. > * 공장 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우이브가투어우 오뷰어훅토리 < We've got a tour of your factory. >

문의: 윤 중성 (017-723-4977)cdyoon@nate.com